

## 방송에서 바라본 제주어

### 강인창

(KBS 제주)

#### 1. 지금까지의 사례- 'KBS 제주' 를 중심으로

- 제주어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회위주의 행사나 중계방송, 취재가 주를 이룸
- 제주어 경연대회와 제주어 동요 대회 등
- KBS 제주방송총국인 경우 제주어 동요대회를 전국 대회로 주최하여 방송을 하였으나 크게 제주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특히, 경연대회 성격상 입상을 목적으로 하여 참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음악적 완성도에서는 특히 제주도 팀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타 지역 참가자가 우위를 점해, 제주도의 참가자가 입상에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에 제주어가 단지 수상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대회후 동요가 제대로 애창되지도 않았음.

- 또한 KBS 제주총국은 '제주어 드라마'를 단막극으로 제작 전국방송을 하였음.

-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고정코너를 통해 제주어를 방송하고 있음.  
라디오 칼럼을 제주어로 소개하는 '설문대 할망'코너와 제주어를 제대로 배워보고자 하는 '살았지기 골았지기' 코너를 방송하고 있음.

- 두 코너의 문제는 너무 정통 제주어를 추구하여 방송함으로 젊은 세대는 알아 듣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2. 앞으로의 접근방법

두 가지의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임.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인 그것인데 내재적 접근은 기존의 정통 제주어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 하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원형의 제주어를 음성으로 들려 줄 수 있도록 함. 기존의 라디오 두 코너도 이에 해당함.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정통 제주어를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외재적 접근은 단막극 형식의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제주어로 제작 방송함. 드라마는 일상 대화 형식이기에 제주어를 잘 모르더라도 영상물의 전후 사정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상황임.

또한 예산 상황이 허락하면 제주민의 일상 대화를 녹음하고 디지털화해서 보관하고 좋은 내용은 방송에서 소개하는 기획을 준비 중임.

현재 제주도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대화는 제주어를 잘 알고 말하는 노년층과 어느 정도는 제주어가 익숙한 중년, 상대적으로 제주어를 잘 사용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의 대화를 기록하는 것이다.

노년끼리의 대화하는 제주어와 노년층과 중년층의 대화, 노년과 청년, 어린이들의 대화는 제주어 소통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대화를 세대간, 계층 간의 일상 대화를 통해 현재의 제주어를 기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방송이 하고자 한다.

즉 정통 제주어의 활용과 현재의 제주어 활용 두가지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